

미술품 감정,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이준희 <월간미술> 기자

국내 미술품 감정의 현실과 감정 전문가의 현황

최근 미술계는 ‘박수근의 <빨래터> 위작 논란’으로 뜨겁게 달궈졌다. 시비공방을 떠나 이번 사태로 우리 사회가 새로 확인한 사실은, 국내 미술품 감정의 현황이 어떠한지 다들 제대로 모른다는 것이다. 과연 누가, 어떤 경로로 미술품 감정가가 되며, 어떤 방법으로 미술품을 감정하고 있는 것일까?



들어가는 말

지난 2007년은 한국 미술사에서 잊혀지지 않는 해가 될 것이다. 젊은 여성 큐레이터 신정아의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 선임을 계기로 촉발된 학력위조 사건은 일파만파 번졌고, 이 여파가 채 가시기도 전에 국내 경매사상 최고가로 낙찰된 박수근의 작품 <빨래터>의 위작 시비가 터졌고, 삼성그룹은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리고 연말연시에는 미술대학 입시를 둘러싼 비리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이처럼 미술계에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연이어 터지는 ‘사건’에 그야말로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미스런 일련의 사건에 앞서 최근 몇 년간 미술계에는 그 어느 때보다도 따스하고 풍요로운 훈풍이 불고 있었다. 유례가 없이 찾아온 미술시장의 호황으로 말이다. 몇몇 유명작가는 그림이 없어 팔지 못할 정도라는 소문이 돌았고, 우후죽순 생긴 미술품 경매회사에서는 여전히 하루가 멀다 하고 최고가 낙찰 신기록을 갈아

위작 시비가 불거진 박수근의 작품 <빨래터>가 진품임을 발표하는 감정위원 대표 오광수(전 국립현대미술관 관장). 사진 <아트레이드> 제공

치우고 있다. 원인이 무엇이든 최근 몇 년 사이 엄청난 양의 돈이 미술계로 흘러들고 있다. 아니, 흘러든 것이 아니라 ‘미술을 매개로 (자금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말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게다.

자본주의 사회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돈이 흐르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문제는 그 흐름의 방향과 속도가 정상적이지 않을 때 발생한다. 그렇다. 미술품 감정을 둘러싼 모든 갈등의 원인은 ‘돈’에서 시작된다. 갑자기 불기 시작한 미술품 감정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과 시시비비 또한 여기서 비롯된 것이다. 미술품의 진위를 따지고 금전적 가치를 결정하는 감정의 문제도 따지고 보면 결국 돈과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로 귀결된다. 물론 이런 인과관계의 판단이 너무 단편적일지도 모른다. 미술품 감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기 때문이다.



미술품 감정의 방법과 딜레마

미술품 감정에 대한 정의는 그 해석의 관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조형예술 분야의 진위(眞僞)를 가리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형예술은 고서화, 도자기, 토기, 청동기, 불상, 자수, 장신구, 가구 같은 민속예술품과 회화, 공예, 조각, 서예, 판화, 사진 등의 근현대 작품을 일컫는다. 이처럼 미술 감정품의 대상과 범위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 다양하다.

미술품 감정의 종류는 크게 ‘진위감정’(眞僞鑑定, Authentication)과 ‘시가감정’(市價鑑定, Art Appraisal)으로 나눌 수 있고, 여기에 ‘가치감정’과 ‘가치평가’라는 측면을 더해 구분할 수도 있다. 가치감정과 가치평가는 의뢰품에 대한 유무형의 가치를 판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의뢰품의 금액적 가치보다는 미술사가나 평론가, 큐레이터 등 전문가에 의해 해당 작품의 절대가치와 의미를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시가감정은 의뢰품에 금액을 매겨 가치를 평가

최근 문제가 된 박수근의 작품 〈빨래터〉의 감정을 위해 나선 박수근의 아들 박성남.

(오른쪽 페이지) 2005년 4월 한백문화재단에서 열린 이중섭 위작 의혹에 관한 설명회에서 이중섭의 차남 이태성이 위작 의혹에 대해 “아버지가 보내온 진품”이라고 주장하는 모습. 이처럼 근현대 미술품 감정에는 유족이 참여하기도 한다. 사진 <월간 미술> 제공

하는 것이다.

감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진위감정이다. 이것은 말 그대로 의뢰품의 진위를 가리는 것이다. 진위감정은 감정가의 안목에 의한 ‘주관적’ 진위감정과 기타 과학적 방법과 수단을 동원하는 ‘객관적인’ 진위감정을 병행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런데 감정가의 안목과 경륜에만 의지하는 주관적 감정의 경우, 감정가의 전문성과 윤리성 등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제아무리 객관적인 데이터와 근거를 제시하는 과학감정이라 할지라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 고도로 전문화된 사기꾼이 이중섭이나 박수근 시대에 사용되던 종이나 물감을 구해 위조품이나 모조품을 만들었을 경우, 주관적 판단



이 개입되지 않는 한 단순히 시료분석을 통한 수치와 데이터에만 의존하는 과학감정으로는 위작을 완벽하게 걸러낼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감정의 결과를 두고 종종 벌어지는 시비의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다. 이와 같은 감정의 한계와 딜레마는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마찬가지다.

국내 미술품 감정가는 누구인가

현재 국내에서 미술품 감정을 할 수 있는 공인된 기관은 크게 세 곳이다. 한국고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산하 미술품감정위원회, 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회가 그곳이다. 이중 가장 오래된 곳은 1973년 한국고미술협회에서 개설한 미술품감정위원회로서 현재 50여 명의 감정위원이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1982년 한국화랑협회에서 개설한 미술품감정위원회에서는 30여 명이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최근인 2003년에 개설된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역시 약 30명이 감정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밖에 국내 대표적인 경

매회사인 서울옥션과 K옥션에서도 자체적으로 감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개별적으로 감정을 펼치는 인원까지 포함하면, 현재 국내에서 미술품 감정에 관여하는 인원은 약 150명 정도다. 하지만 실제로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어느 정도 완성도 있는 전문적인 감정을 할 수 있는 고급 인력은 30명에도 못 미칠 것으로 추산된다.

그렇다면 과연 미술품 감정가로 활동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 답을 명쾌하게 한마디로 말할 수 없다. 각 감정단체에서 밝히고 있는 감정위원 자격요건 규정을 살펴보면 왜 그런지 수긍이 갈 것이다. 예컨대 이런 식이다. ‘고미술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한국고미술협회), ‘해당분야 최고의 전문가. 협회 회원 중 미술품 감식안을 갖고서 화랑경영을 20년 이상 한 자. 미술품 감식안을 구비한 미술사가, 미술평론가 및 미술관의 학예연구관 이상의 자격을 가진 자. 미술품 감정에 해박한 지식을 갖춘 작가나 기타 전문연구자’(한국화랑협회, 한국미술품감정협

대학	학과	특기사항
한국전통문화학교	보존과학과, 문화재관리학과	
	박물관미술관학과 보존과학전공	전시기획, 박물관교육, 소장품관리, 보존과학, 미술이론의 5개 전공이 있음
중앙대학교	대학원 과학학과 유물과학전공	1994년 석사학위과정에 학과 간 협동과정인 과학사 및 과학철학(과학철학전공과 유물과학전공)학과 설치 1995년 과학학과로 명칭변경. 박사과정 설치 2004년 과학학과로 명칭변경
동아대학교	박물관 보존처리실	
용인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학부, 대학원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문화재보존관리과	특수대학원 소속, 1999년 기록과학대학원 소속으로 신설되었다가 2003년 문화예술대학원으로 편입
한서대학교	문화재보존학과	1998년 예술관리학과로 신설 2002년 문화예술보존학과로 학과명 변경 2005년 문화재보존학과로 학과명 변경
예원예술대학	문화재보존학과	
동양대학교	문화재발굴보존학과	
공주대학교	문화재보존과학과	1998년 신설 2000년 대학원 석사과정 신설 2005년 석박사과정 통합
경주대학교	문화재학부 문화재보존학 전공	문화재학부 아래 문화재학과 문화재보존학 전공으로 나뉨
대전보건대학	박물관과	1991년 박물관학 설치인가 2009년 디지털박물관학과로 명칭변경

■ 표1—보존과학·수복 관련 대학

회). 여기에 다음과 같은 윤리규정이 덧붙는다. ‘문화재 애호정신이 투철한 자’(한국고미술협회), ‘자질과 함께 바른 인격과 품성을 지닌 자’(한국화랑협회), ‘도덕성을 갖춘 자’(한국미술품감정협회). 게다가 ‘감정위원의 명단은 감정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특기사항이 있기도 하다. 경매회사에서 위촉한 감정위원의 자격도 앞의 두 곳과 크게 다르지 않고, 역시 공정성을 이유로 감정가의 실명은 공개하고 있지 않다.

감정품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방대한

만큼 감정가의 전문분야도 그만큼 세분화돼 있다. 따라서 감정에는 단순히 미술 관련 전문가만 참여하지는 않는다. 이론가, 평론가, 화가, 대학교수 같은 미술 분야 전문가 외에도 화랑경영인, 유족, 표구·액자 전문가, 과학 감정을 위한 전문가, 보존·복원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실정이다 보니 현재 활동하는 감정가 중 스스로 ‘미술품 감정 전문가’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말이다.

기구명	세부명칭	특기사항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실 유물관리부	인력 37명
문화재청	문화유산국 동산문화재과	인력 10명
	문화유산국 근대문화재과	인력 10명
국립현대미술관	작품보존관리실	작품수집관리팀 5명
		작품보존수복팀 6명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인력 23명
국립문화재연구소	보존과학연구실과	인력은 각각 10명과 6명
	복원기술연구실로 구분(문화재청 산하 기구)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팀 보존과학실	인력 5명

■ 표2—보존과학·수복 관련 국가기관

미술품 감정가를 양성하는 교육기관

국내에서 미술품 감정가를 양성하는 전문적인 교육기관은 2002년에 개설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예술품감정학과(예술품감정전공과)와 2000년에 개설된 경기대학교 미술디자인대학원 전통예술학과(고미술감정학 전공) 두 곳이 유일하다. 30여 년간 화랑을 경영해온 가람화랑 송향선 대표가 2004년 <이중섭 회화의 감정사례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명지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에서 국내 첫 미술품 감정 관련 석사학위를 받은 바 있다. 이처럼 대학에서의 감정 교육은 학과 설립이 오래되지 않은 만큼 졸업생의 활동 또한 아직은 미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감정 교육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해, 문화재와 고미술품 등의 보존·수복을 위한 관련학과와 연구소 등을 포함시킨다면 감정 교육기관의 범위는 한층 넓어진다. 보존과학과 수복 관련 학과가 개설된 대학과 국가기관의 현황은 표 1, 2와 같다.

대학과 국가기관에서 가능한 감정 교육의 내용과 수준이 이 정도인 반면, 3대 감정기관(한국고미술협회, 한국화랑협회,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인 감정아카데미에서는 일반인과 미술애호가를 대상으로 실무 중심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006년엔 문화관광부 예산 3억 원을 지원받아 한국화랑협회 감정위원회와 한국미술품감정협회가 공동으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감정 교육의 단초를 마련하고자 했다. 하지만 이후 지속적인 예산확보가 이루어지지 못해 현재는 아카데미가 중단된 상태다. 2006년 감정아카데미에는 1000명이 넘는 사람이 지원하는 등 일반인에게 미술품 감정이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감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감정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진행된 경우는 없다. 강의 수준도 일반인 강좌나 중급 수준의 강좌에 머무르고 있어서 전문가 양성을 위한 장기적인 대안과 프로그램 마련이 절실하다. 이에 한국미술품감정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감정아카데미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감정에 대한 전반적 소개와 필요성 등을 설명하는 데 국한돼왔다. 앞으로는 미술전문가를 대상으로 보다 심층적이고 실제적인 교육을 펼침으로써 차세대

■ 여기서 2006년 진행된 미술품감정아카데미(전문가 과정)의 강의 내용과 강사의 직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감정학 개론(최병식 경희대 교수), 과학감정방법론(최영운 명지대 교수), 필적감정(김정호 전 대검찰청과학수사과 문서감정실장), 미술품복원연구(김주삼 호암미술관 현대미술보존 수석연구원), 재료에 의한 현대회화 감정(최영운 명지대 교수), 재료에 의한 서화감정(이효우 낙원표구 대표), 서양의 감정(조명계 중앙대 교수), 감정을 위한 전작도록제작 연구(정영목 서울대 교수), 미술품 시가감정 연구(서진수 강남대 교수), 감정의 이론과 실제-서화(진동만 KBS진품명품 감정위원), 감정의 이론과 실제-근현대회화(송향선 한국미술품감정협회 감정위원장, 가람화랑 대표)

감정가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문적인 미술품 감정을 위한 과제와 대안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개인 감정가 제도는 없다. 다만 감정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감정단체만 존재할 뿐이다. 그리고 감정단체의 감정 위원은 상임과 특별 그리고 자문위원으로 크게 나뉘는데, 실제적인 감정은 주로 상임감정위원회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임위원은 미술시장 종사자나 현직 교수, 작가 등 본업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들 상임위원은 감정을 본업과 관련 없는 봉사활동 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 경우에 따라 유족, 과학 감정가, 액자나 표구 전문가 등이 특별감정위원으로 감정에 참여하기도 한다. 유족이나 과학감정 전문가를 제외하면, 전문적인 감정가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대부분 작가나 교수, 이론가, 화랑운영자 등 미술계 각 분야에서 오랫동안 몸담아온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짧게는 10년에서 20년 이상 경력을 쌓아온 이들 1세대 감정가들은 모두 불모지에서 자생적으로 감정 능력을 키워온 사람들이다. 2, 3세대 감정가의 양성을 위한 과제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앞으로의 미술품 감정은 이들 1세대 감정가들이 해왔던 것보다 훨씬 전문적이고 객관적이며 체계적, 과학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현재 상황에서 전문적인 미술품 감정가가 되기 위해선 스스로 전문성

과 노하우를 습득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미술과 관계없는 일반인이 전문 감정가가 되기 위한 방법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단 얘기다. 한국의 미술품 감정이 안고 있는 과제가 바로 이 지점에 있다. 미술품 감정가로서의 책임과 권위를 겸비한 ‘스페셜리스트’가 없다는 것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장단기적으로 나누어 생각해볼 수 있다. 우선 가장 현실성 있는 대책은 정부지원 민간기구인 ‘한국미술품감정위원회’(가칭)의 설립을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다. 몇 년 전부터 미술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이 방안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비영리단체인 독립기구를 만듦으로써 감정의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자료구축, 윤리강령 제정 등 미술품 감정을 위한 기초적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역시 교육에 관련된 것이다. 앞서 수차례 지적했듯이 전문 감정가를 양성하기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이 절실하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계 못지않게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요구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라는 말처럼.

결론을 대신해

최근 미술품 감정이 일반인들에게까지 관심의 대상이 된 원인은 국민화가로 불리는 박수근의 작품 〈빨래터〉 위조 공방에서 비롯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아직 진행 중인 이 사건의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나든, 이 일은 미술계에 적잖은 충격과 상처를 남겼다. 그러나 더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가짜이나 곱지 않은 시선으로 미술계를 바라보던 일반인들의 눈초리가 더

욱 매서워졌고 심지어는 냉소적으로까지 변했다는 것이다. 미술계에 대한 불신이 이렇게까지 팽배해진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특히 사건의 본질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채 경쟁적으로 선정적인 기사를 쏟아낸 일부 언론에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몇몇 일간지와 방송의 보도 행태를 보면서 ‘이건 아닌데!’라는 걱정과 우려가 교차했다. 이에 대한 의견은 〈한겨레 21〉 노형석 기자의 기사를 인용함으로써 대신 한다.

“새해 벽두의 〈빨래터〉 논란은 부조리로 점철된 블랙코미디와 비슷하다. 논란의 씨앗을 뿌린 〈아트레이드〉의 기사를 본 미술 동네 사람들은 글이 의혹의 근거가 부실한 아마추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신문, 방송기자들은 비싼 그림 스캔들이란 간판으로 잡지의 내용과 찬반 논란을 별 여과 없이 중계하는 데 바빴다. 진품이라고 확정 판결한 감정위원들은 모두 감정서 뒤에 자기 견해를 숨겼고, 화랑주들은 ‘무시해도 되는데 언론이 선정 보도했다’고 하고 다닌다. 짝퉁 논란이 확산된 건 지난해 12월 31일치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에 ‘45억짜리 박수근의 그림 〈빨래터〉가 수상하다’, ‘45억 2천만 원짜리 그림이 가짜?’라는 제목을 각각 붙인 잡지 인용 기사들이 실리면서부터다. 이후 다른 신문, 방송들이 앞 다퉈 ‘대한민국 최고가 그림이 짝퉁?’이란 제목으로 잡지에 실린 류병학 편집주간의 의혹 글을 받아 보도했다...”(2008.1.17 〈한겨레 21〉 제694호 기사 중)

실업자가 수십만을 헤아리는 작금의 경제 현실에서 사람들은 수십억의 뭉치돈이

굴러다닌다는 미술계 얘기에 귀가 솔깃해질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런 지점에서 또 다른 오해가 파생된 건 아닐까? 미술품 감정에 대한 실태나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도 없이 미술계 전체를 왜곡된 방향으로 몰고 가는 건 아닌가 하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예컨대 미술과 문화 전반에 대한 일반인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술품 감정가가 새로운 유망 전문직업으로 알려지기도 한다. 안타까운 일이다. 분명히 말하건대, (현재로서는) 미술품 감정가는 절대로 유망직종이 될 수 없다. 학계나 현장 어디에서도 확고히 정립되지 못한 상황에서 감정을 마치 유망한 직업인 양 생각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환상에 불과하다. 감정가가 되기를 원하는 일반인이 있다면, 아무쪼록 이런 점을 충분히 헤아리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미술 감정뿐 아니라 미술과 일반인의 거리를 더 멀게 하는 셈이 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글쓴이 **이준희** 1969년 출생해 경원대학교 미술대학 응용미술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홍익대학교 미술대학원에서 예술기획을 전공했다. 개인갤러리, 답갤러리, 사비나갤러리에서 큐레이터로 일했고, 2000년부터 현재까지 〈월간미술〉 기자로 일하고 있다.